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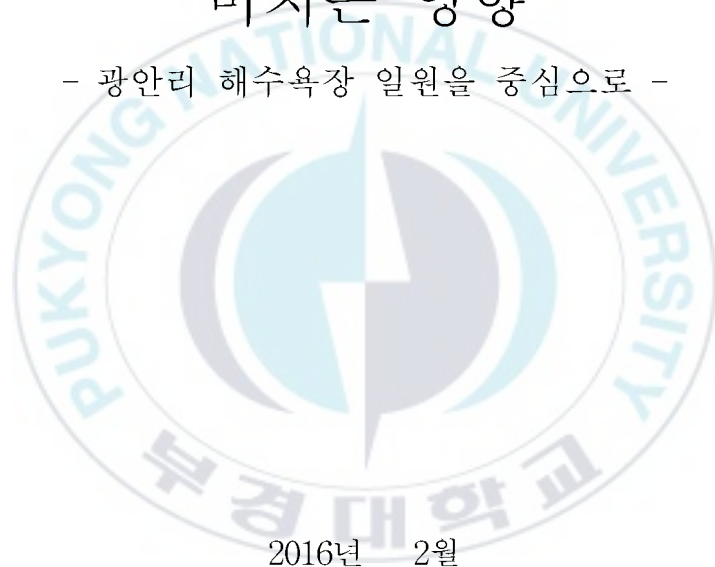
[Disclaimer](#)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도시해안의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이
도시이미지와 이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을 중심으로 -



2016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최 현 정

Thesis for the Master of Degre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The Effect of Coastal Nightscape Public Design on City Image and User Attitude

- Centered on Gwangalli Beach Area -

by

Hyun Jeong Choi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16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도시해안의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이
도시이미지와 이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양 위 주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최 현 정

The Effect of Coastal Nightscape Public Design on City Image and User Attitude

- Centered on Gwangalli Beach Area -

Advisor: Prof. Wii-Joo YHANG

by

Hyun Jeong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Degre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16

최현정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2월

주 심 경영학박사 배 상 욱 (인)

위 원 관광경영학박사 전 재 균 (인)

위 원 관광레저학박사 양 위 주 (인)

목 차

<표목차>	iii
<그림목차>	iii
Abstract	i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야간경관	4
1. 도시 야간경관	4
2. 도시해안의 야간경관	7
제 2 절 공공디자인	12
제 3 절 도시이미지	15
제 4 절 이용자 태도	18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21
제 1 절 연구모형	21
1. 연구모형	21
2. 분석방법	22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23
1. 야간경관 공공디자인과 도시이미지의 관계	23
2. 야간경관 공공디자인과 이용자 태도의 관계	24
제 4 장 연구방법	26
제 1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26
1.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26

2. 도시이미지	29
3. 이용자 태도	29
제 2 절 자료의 수집	30
제 5 장 실증분석	31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31
제 2 절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32
1.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32
2. 도시이미지와 이용자 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35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37
제 4 절 가설검증	39
1. 공공디자인과 도시이미지의 관계	39
2. 공공디자인과 이용자 태도와의 관계	41
제 6 장 결론 및 제언	43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43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47
참 고 문 헌	49
설 문 지	59

<표 목차>

Table 5-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31
Table 5-2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34
Table 5-3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36
Table 5-4 Correlation Analysis of Conceptual Valuables	38
Table 5-5 Multiple Regression Results	40
Table 5-6 Multiple Regression Results	42

<그림 목차>

Figure 3-1 Research Model	21
---------------------------------	----

The Effect of Coastal Nightscape Public Design on City Image and User
Attitude Centered on Gwangalli Beach Area

Hyun Jeong Choi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Wii-Joo YHANG

Abstract

Keywords : Nightscape, Public Design, City Image, and User Attitud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city image and user attitudes of night-time public design in urban coasts by surveying citizens and tourists around Gwangalli Beach. This paper first examined preceding studies on urban nightscape, public design, city image, user attitudes, etc. The paper then proposed hypotheses to test whether or not night-time public design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upon city image and user attitudes, and conducted multi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the relations among variabl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offer study results of public design that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nightscape, and to present guidelines for selecting the priorities of public design in the development of night-time tourist products and applying to actual landscape desig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those visiting Gwangalli Beach at night on April 20th - May 28th 2015, with a total of 211 copies of the questionnaire used for a final effective sample.

Using SPSS 18.0, statistical approaches were conducted—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oncluded two data points.

First, night-time public design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ity image. Night-time public design affected city imag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listed in descending order of importance): local identity, sustainability, aesthetics, and safety. The results suggested that city image is positively affected by the following categories: local identity using distinctive nightscape, and unique local cultural and geographic features; sustainability promoting urban renewal and resource recycling and reflecting the requirements for nightscape; aesthetics of color lighting in harmony with environments; and safety allowing visitors to look at landscape under moderate illumination.

Second, night-time public design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user attitudes. Night-time public design affected user attitud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listed in descending order of importance): sustainability, welfare, aesthetics, and accessibility. Test results suggested that developing favorable attitudes among users requires meeting user needs to improve the elements of night-time public design—sustainability promoting renewal and recycling; welfare giving users less stress and more happiness and comfort; aesthetics offering visual pleasure; and accessibility allowing for user-friendly access with well-designed signs and public transportation.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도시는 그 장소가 지니는 고유한 가치, 전통, 유산을 통해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 도시는 인간 활동의 거점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다양한 문화적 매력을 지닌 관광매력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도시 자체가 관광목적지화 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흐름에 편승하여 도시경관은 도시 경쟁력의 주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적 특색을 가진 아름다운 경관자원과 뛰어난 건축자산, 역사성을 지닌 문화유산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원천이며, 뛰어난 도시경관은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관광목적지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최근 도시현상은 각각의 도시들이 도시 경관 계획 수립 등 정책적으로 도시경관을 개선, 보존하려는 노력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 경관법 제정 후, 2013년 8월 전면 개정하면서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국토경관관리를 국가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서주환·박선영, 2011).

세계 관광시장에서 도시관광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각 도시들은 관광목적지가 되기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였다. 자연경관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도시경관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여 도시경관이 브랜드화 되어졌고, 이미지 창출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도시경관이 관광상품화 되는 과정에서 도시경관의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도시경관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표현된다. 도시의 공공디자인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리성,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외적인 미와 함께 해당 도시만의 지역적 경관 특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 된다. 도시의 공공디자인 하나하나가 도시의 이미지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되고 나아가 부가가치를 재창출하게 된다. 도시의 가치와 매력 상승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간 뿐 아니라 야간 경관에 대한 관심도 증폭시켰다. 야간 경관의 공공디자인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야간이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되어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관광경험이 도시이미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도시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전반적인 도시 가치에 역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의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 상승과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야간경관에 관련 된 공공이미지 요소를 도출하여 이용자의 태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현재 도시는 생활공간을 넘어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매력 상승과 관광객 유치 증가를 위해 야간경관이 주목받고 있다. 각 도시들은 차별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야간 경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이드라인에는 도시의 정체성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 측면에 주목하여, 야간경관을 개발·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평가·분석하여 경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의 야간 도시 경관의 대표적 명소인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이 도시이미지와 이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야간경관

1. 도시 야간경관

도시의 다양한 경관 중 특히 야간경관은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조건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방문하여 체류하는 관광객이 보는 경관으로 1차적으로 ‘야간에 보여지는 풍경’이라 할 수 있다. 2차적으로 풍경에 내재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여러 야간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포함한다(임승빈, 1998). 특히 도시의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도시가 기능적으로나 행태적으로나 이용시간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시관리는 시민 중심이었으나, 도시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도시가 관광목적지화 되어졌고, 이는 도시의 매력도 제고를 통해 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도시에서의 이용시간대 확장, 즉 관광객에게는 체류시간 증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이러한 배경하에 도시의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은 도시관광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야간경관은 방문객의 시각적 감각에 감지되는 물리적인 형태가 일차적이고, 지역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계범령과 도시가이드 라인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재형성되는 동적인 과정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권용우, 2010). 도시 가이드라인과 지역의 스토리가 연결되어 지리적 특성과 함께 사람의 활동 등에 내포된 고유한 지역성이 계획적 요소로 연출된다(김유

지·김양석, 2009).

야간경관은 일반적으로 조명시설물이 경관이 된다. 주간경관은 인공조명과 자연광에 의해 보여지는 경관이고, 야간경관은 인공광원을 근거로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경관이다(김명수, 2012). 그러므로 주간과 달리 빛에 의한 위계성이 도시의 랜드마크나 오브제를 더욱 돋보이게 인위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경계나 축 등을 디자인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출과 구성은 도시 내의 서로 인접한 부분에 대한 규모의 변화와 도시 전체의 맥락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Hong, 2006). 이는 모두 전체적인 통일감하에서 연출되어야함과 동시에 각 요소들의 관계에서는 단조롭고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성이 요구된다(Lauer, 1979). 이렇게 구성된 야간경관 구성 요소들은 풍요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도시의 개성과 특성을 연출할 뿐 아니라 도시의 경관적 측면에서 야간환경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야간경관계획을 통해 도시민의 야간생활은 편리함과 안전성, 활동성이 보장되며, 그러한 장점은 점점 확대된다(이한석·이명권·오상백, 2005). 뿐만 아니라, 고유한 야간경관을 보유한 도시는 새로운 개념의 예술문화상품으로 지역의 특성을 지니며,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다(이미순, 2007).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프랑스의 니스, 이태리 베니스, 영국의 런던 등 유명도시 관광목적지를 중심으로 야간 경관 조성이 활성화되어 왔다. 산, 호수, 강, 바다 등의 기존 도시가 가진 다양한 자연자원과 박물관, 건물, 교량 등의 인공자원이 조화를 이루어 도시 자체가 예술작품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자체 경관시책의 근간이 되는 조닝제도(1910)를 기반으로(이정형, 2002)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경관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야간경관의 중요성을 인식, 2004년 경관법 제정 이후 많은 지방자체 단체가 적극적으로 장기 계

획을 통해 야간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이사카와현의 가나자와 시, 효고현의 고베시, 요코하마시의 미나토미라이 21이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시의회의 지원으로 야간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의 지정구역을 바탕으로 야간경관을 형성할 구역을 설정, 야간경관을 창출하고 있다(최민아·노정민·구자훈, 2009).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야간경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역적 특색에 현대적 분위기가 더해진 매력적인 야간경관 건설에 주목해왔다. 특히, 상해 지역은 최초로 야간경관 개발을 시작하여 도시 야간경관 건설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Zhou, Jin, Wang & Wang, 2010).

우리나라는 19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기를 지나면서 풍요로운 삶과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역시 높아졌다. 또한 도시민들의 활동시간이 야간으로 연장되면서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2000년 서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보고서 발간 후 야간경관계획이 본격화 되었다. 2004년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야간경관 계획(2011) 등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규진·이주향, 2013).

도시의 야간경관에 관한 선행연구로 이종희(2013)는 2006년 이후 서울의 야간 경관 변화를 고찰, 도심의 야간경관을 문화지리학적으로 접근하여 24시간 생활 가능한 도시의 사회와 문화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지은·서유석(2009)은 창원시 도심상업지역 가로외곽의 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물리적 측면에만 주목하여 물리량과 조명환경을 조사하였다. 김유지·김양석(2009)은 야간경관의 기본목표인 쾌적성, 정체성, 안전성, 인지성을 통해 야간경관의 전체만족도를 분석하였고, 야간경관의 물리적 요소를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로 분리하여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였다. 안현태·최윤석·정인영·김정태(2007)는 서울의 4개의 주요가로를 선정하여 야간가로경관의 이미지에 대한 관찰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평가하였다. 각 가로는 아름다움, 활기참, 다양함, 조화로우 등 이 경관의 이미지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야간경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물리적 측면, 특히 조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의 야간경관을 도시 관광의 관광목적지 선택이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최근 야간경관과 도시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유지·김양석, 2009; 안현태·최윤석·정인영·김정태, 2007)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반적인 경관이나 도시이미지를 분석하는 정도이다. 주간과 야간을 대상으로, 또는 야간경관에 대한 도시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도시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을 유형화하여 야간의 도시이미지와의 관계와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도시해안의 야간경관

도시의 수변공간은 해안, 하천, 호소(湖沼)로 크게 분류되며, 수제선(水際線 : 물과 땅이 맞닿아 이뤄진 선)을 기점으로 양측 일정한 범위의 수역과 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이다(토지이용 용어사전, 2011). 도시해안의 수변공간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산업적 기능의 강조로 항구나 항만으로 관문의 성격을 띄며 일상적인 도시공간과 분리되었다(Hoyle, Pinder & Husain, 1998; 정순원·우신구, 2010). 그러나 1980년대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이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변공간은 상업, 업무, 주거의 기능을 갖는 공간적 성격이 강조되었다(권영상·조민선, 2010). 20세기 후반에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여가공간과 어메

니티(amen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수변공간은 관광, 문화, 여가 등의 새로운 기능으로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김희철·이한울·안건혁, 2013). 새로운 역할을 위한 도시재개발은 기존 공간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Proudford, 1996; 이금진, 2008), 많은 사람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권영상·조민선, 2010).

공공성 확보는 도시민에게는 레저, 운동, 산책을 즐기는 공간으로 수변공간의 이용 증대를 가지고 오며, 야간 해수욕장 및 산책로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소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활동의 급격한 증대로 증대로 이용자들의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김종현·박혜리·임창호·박원주·이광식, 2009). 주변 경관의 다채로운 야경은 방향성과 아이덴티티를 지니게 하여 이용자에게 여유롭고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며, 즐거움을 주어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도시해안의 야간경관은 건물이나 상업가도가 중심이 되는 일반적인 도심과는 달리 수변공간이 중심이 되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해안의 야간경관은 빛과 어두움이 조화의 질서를 구축한다. 해수면의 하늘과 바다가 어두움의 배경이 되고, 항만, 도시의 건물, 교량 등에서 내보내는 조명에 따라 다양한 경관들이 연출되어진다(이한석·이명권·오상백, 2005). 이 때 경관 형성을 위해 필요한 밝기와 색을 지닌 조명이 적당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최민아·노정민·구자훈, 2009).

또한, 해안의 야간경관은 점, 선, 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도심과 차별화되는 독특함과 다양성을 지닌다. 점의 공간은 수면 공간, 교량의 형태이며, 선의 공간은 육지와 경계를 이루는 해안선을 의미한다. 면의 공간은 배후지역과 일체되어 만들어진 공간이다(김명수, 2012).

해안 공간을 통해 수변공간은 물리적 개방성을 부여하며, 수변은 해당

지역의 경계선이 되어 해안선을 파악할 수 있는 방향성을 지닌다(김명수, 2012). 도시와 수변공간 사이의 지리적 및 물리적인 관계와 해안, 항만 등에 따른 수변공간이 가지는 특수성은 다양하다.

해안경관은 조망점의 위치에 따라 육지에서 해역을 바라보는 경관과, 해역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경관의 시각적 구성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경관의 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개방되어 있는 넓은 해안의 수면을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하며, 정지된 조망점과 이동하는 조망점,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야간경관의 하나의 장면(scene)으로 치부하여 파노라마 형식으로 감상하는 것이고, 후자는 도보나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야간경관의 연속성(sequence)을 경험하는 것이다(김경인, 2003).

도시해안의 야간경관은 이러한 수변공간의 특징을 부각시켜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안을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관광매력물로써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경관연출을 통해 교량, 수상무대, 전망대 등의 랜드마크 형성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

해양선진국은 일찍이 이러한 해안의 야간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평가하였다(이한석·이명권·오상백, 2005). 물의 도시라 불리우는 이탈리아 베니스는 베네치아만 해안가를 따라 이어지는 건물의 빛과 각 섬을 잇는 400개의 크고 작은 다리의 조명, 수면에 반사되는 빛을 보는 야경프로그램을 야간 매력물로 만들었다.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엔틱 디자인의 유리갓 조명기구를 설계하여 공공가로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섬의 특성상 해안 주변의 어두운 거리에 대한 식별정 제고를 위해 폭 2m의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세계 최대의 항구도시인 호주 시드니는 해안가에 하버브릿지, 오페라 하우스 등 랜드마크가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 공공디자인적 관점에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공효주·김정태, 2010).

홍콩은 수변공간을 잘 활용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이다. 수변공간의 특징을 살릴 조망점(scenic point)를 설치하여 어느 각도에서도 아름다운 해안의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양한 조망점에서 주변 고층 건물의 아름다운 조명과 빅토리아 항에서 진행되는 멀티미디어 레이저 쇼, 센트럴 지역 고층 건물의 벽면에서 실시되는 빛과 조명을 이용한 조명 쇼 감상을 관광상품화 하여 홍콩의 야간 도시경관은 관광객의 체류증가를 유도하고 있다(이미순, 2007). 중국 상하이의 해안길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영국식 건축스타일이 우세한 지역이다.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백색의 저전력 조명을 건물의 서로 다른 요소에 부분적으로 배치하여 강조하였다. 이 결과 통합적이며 조화로운 야간경관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Zhou, Jin, Wang & Wang,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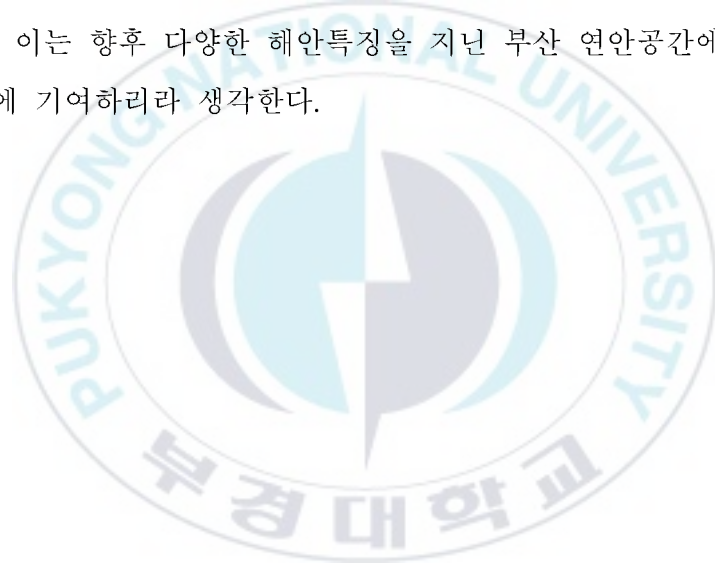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는 2004년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근거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야간경관 기본구상의 목표는 해양관광도시, 생태환경도시, 문화·역사도시, 생태환경도시이다. 해양관광도시의 목표를 위해 해수욕장, 수변공원 등 친수공간은 물론, 항만의 냉동공장, 컨테이너 등의 해양관련 요소 역시 야간경관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한다(김규식, 2013).

도시 해안지역의 야간경관 개발은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해양도시의 도약을 통해 지역적·국가적 이익창출을 가져 올 수 있다.

야간경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이한석·이명권·오상백(2005)은 해안의 야간경관 개선 방안 연구에서 영도의 해안 전체 야간경관과 경관지역별 야간경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도식(2007)은 도시수변공간을 성공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외 25개 도시 수변개발 사례를 연구하였다. 도시수변형태, 건축환경, 이벤트 및 프로그램, 물의 존재, 이용자의 다섯 가

지 요소를 선정, 도시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접근방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권영상·조민선(2010)은 도시공간에서 만족도 높은 수변공간의 요건을 연구하고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안이 포함된 수변공간의 경관, 디자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으나, 야간경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도시의 야간경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바, 부산의 야간도시경관 중 도심 해안의 대표적 장소인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의 야간경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다양한 해안특징을 지닌 부산 연안공간에 대한 해양경관 연구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제 2절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은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적 정의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다양한 정의가 필요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경우는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으로 주로 사용되며, ‘공공’이라는 단어는 국가 및 사회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된다는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네이버 국어사전), ‘공익’의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경희·김경훈, 2014). 국외에서는 Public Design, Public Interest Design, Community Design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안혜림·이현경, 2014), Urban Design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양숙, 2014).

공공디자인은 1차적으로 공공 영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물리적 디자인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공공공간은 공공성의 의미를 띠는 모든 공간이며(이주영, 2015),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의 심미적, 기능적, 상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공공디자인문화포럼, 2005). 최근 공공디자인의 대상은 목적이나 도시의 규모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국한되기도 하고, 도시의 거시적인 경관을 모두 포함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다(안지윤·양위주·이광국, 2015).

현대의 공공공간은 도시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물리적인 환경이 있는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 복잡한 사회적 공간의 건설로 인식되고 있다(Crouch, 2006). 공공공간이 가진 잠재력은 긍정적 인간관계를 조성하고(Shinew, Glover & Parry, 2004), 시민 참여를 장려하며(McInroy, 2000),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으로 공간에 대한 가치가 형성하여 이미지를 생성한다(유홍택, 2014). 또한, 도시 재생계획을 일으키는 동시에(Glover, 2003), 지역사회 역량을 상승시킨다(Pask, 2010). 그러므로 공공디자인의 의미는 2

차적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확대된다.

‘공공을 위한 디자인’으로 도시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며(윤종영·안혜신, 2009), 이를 위해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체 의식, 문화와 역사성의 회복, 공공공간의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윤희, 2012). 공공디자인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며(이주영, 2015), 윤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안혜림·이현경, 2014). 사용 범위가 넓으므로 접근성을 가지고, 편안하며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심미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박태욱, 2015)

박용균(2012)는 공공디자인이 사회문화적 기반시설로 공공사업의 필수요소라 하였다. 박완수(2013)는 도시 공공공간 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 디자인이며, 도시공간과 건축물, 사회와 연계, 역사와 문화, 행정과 정책, 사회간접시설 등의 도시 전반적 영역 통합을 위한 디자인 체계라 정의하였다. 더 나아가 공공디자인은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여 문화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최영준·장동련·권승경, 2008), 선진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공공 포괄적 행위이다(윤종영·안혜신, 2009).

서지연(2012)은 공공디자인이 사회통합, 문화적, 경제적, 의사소통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보편적 삶의 질을 증진하며, 각종 공공공간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변 공공환경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시각적 아름다움 제공하여 조화롭게 구성함과 동시에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장소성, 역사성 등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화한다. 의사소통 공간의 측면에서는 시민의 공동체적 충족과 개인의 다양성과 자유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신홍경, 2008).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유 이미지 창출을 통해 마케팅에 집중하여 상권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공공디

자인은 다각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공공디자인 관련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공의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RISS를 통해 ‘공공디자인’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2015년 12월 8일 현재 학위논문 270편, 학술지 445편을 포함 총 972편으로 연구주제는 크게 가이드라인, 정책 및 계획, 디자인 평가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디자인평가에 관한 것으로 이용자인 도시민과 관광객의 관점에서 해안도시의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심미성, 활용성, 안전성, 접근성, 복지성, 지역정체성, 지속가능성.



제 3절 도시이미지

Allport(1979)는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공간과 연관된 사건 등이 이미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시나 해당 지역의 문화와 관련하여 도시 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될 경우 이를 도시이미지라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는 도시에 대한 연상의 유형과 강도, 독특성과 호의성으로 구성되며(Keller, 1993), 도시의 상징, 속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환경특성이다(장조아·송지원, 2007). 도시의 공간이미지는 도시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인식된 주관적 형상을 통해 타 도시와 차별화하는 상징성을 지닌다(양승희, 2010). 도시의 공간이미지는 도시민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점에서 도시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최기중, 2002).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인들로 Jon(1994)은 자체적인 자연환경과 건축물, 광장, 가로 경관 등 조성된 인공환경, 해당 도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공간 자체의 미적표현 등의 환경요소로 분류하였다. 랜드마크나 간판, 해당 도시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상품 등의 물리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개성적인 특징과 전체적 통일성도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관광객 관점에서 도시이미지는 관광객이 그들의 거주지가 아닌 관광 목적지에 대해 느끼는 인상(Hunt, 1975; 박경태·백종은, 2013)이라 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에 대해 갖는 주관적 인상(Asmed, 1991)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인상은 장시간에 걸쳐 관광객의 직·간접적 정보탐색에 의해 형성된 관광지에 관한 지각·인식의 총합이다(Assael, 1995). 관광객이 관광지 방문 이전에 학습한 다양한 정보에 관광지에서의 현실 경

험이 더해져, 도시, 경험, 상품에 대해 느끼는 정신적·시각적인 전체적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Milman & Pizam, 1995). MacKay & Fesenmaier(2000)는 도시이미지를 관광지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인상이라고 하였다. Seaton & Bennett(1996)는 이러한 속성을 관광지의 매력, 안전 등의 개인 평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관광 목적지의 지리, 구민, 기반시설, 기후, 비용, 역사라고 하였다. 물리적 속성 외에 실제 관광경험을 하기 전 자발적인 의사 혹은 제안을 통하여 갖게 되는 장소 혹은 활동에 대한 기대의 총체 역시 이미지의 일부이다(Anderssen & Prentice, 1997). 즉, 도시이미지는 관광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속성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인상이라 할 수 있다(MacKay & Fesenmaier, 2000).

도시의 도시이미지의 특성화를 통해, 도시 자체가 상품 가치를 지닌다.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의 가치 상승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며, 이들을 통해 잠재적 관광객에서 도시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거주하는 도시민의 도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에서도 긍정적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된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도시 발전에 기여하여 도시는 재정 수입 증가로 재원을 확보한다. 이를 다시 도시성장과 재생에 투입하여 순환시킴으로써 전반적 도시 개선을 이룰 수 있고, 관광사업의 거대화화를 이루어 도시의 행정자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도시의 이미지화는 도시 자체의 가치 상승과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도시의 독특한 주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브랜드 구축의 핵심이 되고 있다.

김남정(2005)은 도시이미지를 도시공간의 단위시설, 건축물 등의 장소, 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실체적 이미지와 도시생활, 공간·지리·위상, 역사

성, 사회·문화·활동 등의 이미지로 분류된 상징적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최승담·박경렬(2005)는 도시이미지를 환경성, 상징성, 구조성, 접근성, 경제성, 관광매력성의 인지적 이미지와 시각성, 독특성, 역동성, 전통성, 쾌적성의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하여 도시를 관광적 측면에서 보았다. 변재상·최형석·이정원·임승빈(2006)는 도시이미지를 물리적 이미지 요소(자연적, 인공적)와 인문적 이미지 요소(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기능적, 역사적, 감각적)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강성중·김진희, 2011). 양승희(2010)의 연구에서는 도시이미지의 인지요소를 환경적, 물리적, 상징적 요소 3가지로 구분하였고, 각각에는 하부요인이 존재, 물리적요소는 관광매력성, 경제성, 접근성, 구조성, 환경적 요소는 환경성, 쾌적성, 시각성, 상징적 요소는 상징성, 전통성, 역동성, 독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들이 도시 공간 내 건축물, 가로, 시설 등의 물리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 연구는 쾌적성, 독특성 등의 감성적 이미지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도시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각 도시의 특성이 뚜렷해져 도시 브랜드가 중요해지면서 점차적으로 관광객의 경험 및 감성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경관과 도시이미지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 주간의 도시경관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야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적 체험을 기반으로 한 도시이미지들을 바탕으로 도시이미지 요소를 도출하여,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야간의 도시이미지 향상을 통한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 증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4절 이용자 태도

태도를 뜻하는 영어의 'attitude'는 적합성을 뜻하는 라틴어의 'aptus'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탈리아어의 'attitudine', 불어의 'attitude'에서 유래하였다. 20세기 이르러 태도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시도되었고, Allport(1935)는 태도를 개인이 외부의 상황 및 사물에 반응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상태라 정의하고, 이는 경험으로 형성된다 하였다. 태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특정대상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선유경향”이다 (Carmichael, 2000; Fishbein & Ajzen, 1975; 강미희, 1999). Bettinghaus & Cody(1987)는 이러한 반응을 사물에 대해 느끼는 좋고 싫음의 감정적 측면에서 보았고, 이경수·양길승(2015)은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람, 사물, 아이디어에 대해 느끼는 긍정 및 부정의 평가로 정의하였다.

태도는 평가대상, 활동, 사건 등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광고나 주변인 등의 다양한 정보와 영향의 간접 경험의 결과로 형성된다(Ajzen & Fishbein, 1980; 오상훈·이유라, 2014). 신념, 개인적 욕구 구조와 가치 체계, 자아이미지, 성격 등의 내부적 영향 요인의 지각과, 지식의 습득으로부터 형성되는(이연정·이수범, 2008; 윤정현, 2009; 윤정현·이정학, 2011; 류인평·김영주, 2011), 경험적 심리요인이라 할 수 있다(정호권, 2011; 조희범, 2010). 이러한 태도는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며, 방향성과 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강미희, 1999).

태도는 개인의 의도를 담고 있는 차기 외적행동을 위한 준비상태이다(윤정현, 2009).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므로(Gerrig & Zimbardo, 2007), 만족도 및 추천의도 등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쳐(강미

회, 1999; 여호근, 2000), 회피와 접근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하중완, 2006). 따라서 관광태도는 관광객의 참여와 만족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지시자이며(Ragheb & Tate, 1993), 인간의 행동 예측하거나 변화시키려 할 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정석순·이준엽, 2012).

관광태도란 ‘관광객이 관광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 관광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 및 관광 영향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생각’(조명환·양봉석, 2004; 윤대순, 2000; 김용욱, 2012; 이후석, 2013)이다.

태도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의 3원론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Schiffman & Kanuk, 1991; Assael, 1998). 인지적 요소는 정보수집과 관광지 속성비교 및 평가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광객의 지식과 신념을 의미한다(이경수, 2015). 감정적 요소는 태도대상에 관한 전반적인 정서적 반응을 뜻하며, 행동적 요소는 특정 대상에 대한 구매의도, 선호 등의 행동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조은나, 2009). 즉, 이용자가 관광목적지에 대한 학습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인지하면, 해당 관광지를 선호하는 감정이 형성되고, 이는 방문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관광은 이러한 경험단계를 거쳐 만족, 불만족 정도의 결과로 나타난다(임지영, 2010). 만족은 우호적 구매태도, 구매의도 증가, 애용 등으로 나타나며, 불만족은 구매의도 감소, 소멸, 불평행동, 부정적 구전, 관광지 대체 등을 야기시킨다(안영면, 2001). 관광목적지에 대한 태도는 관광지 선정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Um & Crompton, 1990), 관광지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관광목적지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관광분야에서 관광태도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태도,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에 대한 지역민의 태도 등으로 분류되며(이경수, 2015),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항목이 연구되고 있다. 태도에 관한 연구로는 McCool & Martin(1994)는 관광개발책임, 관광지개발, 기반시설 확대, 교통 혼잡, 서비스

스 책임 등의 24개 항목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태도를 연구하였다. Godfrey(1998)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참여, 지역사회의 투자와 편익제공 등 23개의 항목을 통해 유럽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태도를 연구하였다. 박희진(2002)은 시설, 편의성, 친절성, 경관, 분위기, 학습 등의 6개 차원을 통해 국내 관광객의 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성범(2010)은 여가체험의 공간적 속성인 물리적 속성, 지각된 위험, 접근성, 서비스 등의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자의 감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긍정적·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관광의 다양한 주제와 항목 중 도시의 야간경관의 관점에서 관광태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해당 연구에 부합하는 태도 요소를 도출하였다. 야간경관을 경험하는 관광 활동 전반에 걸쳐 호의적,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안 도시의 공공디자인이 관광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제 3 장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제 1 절 연구 모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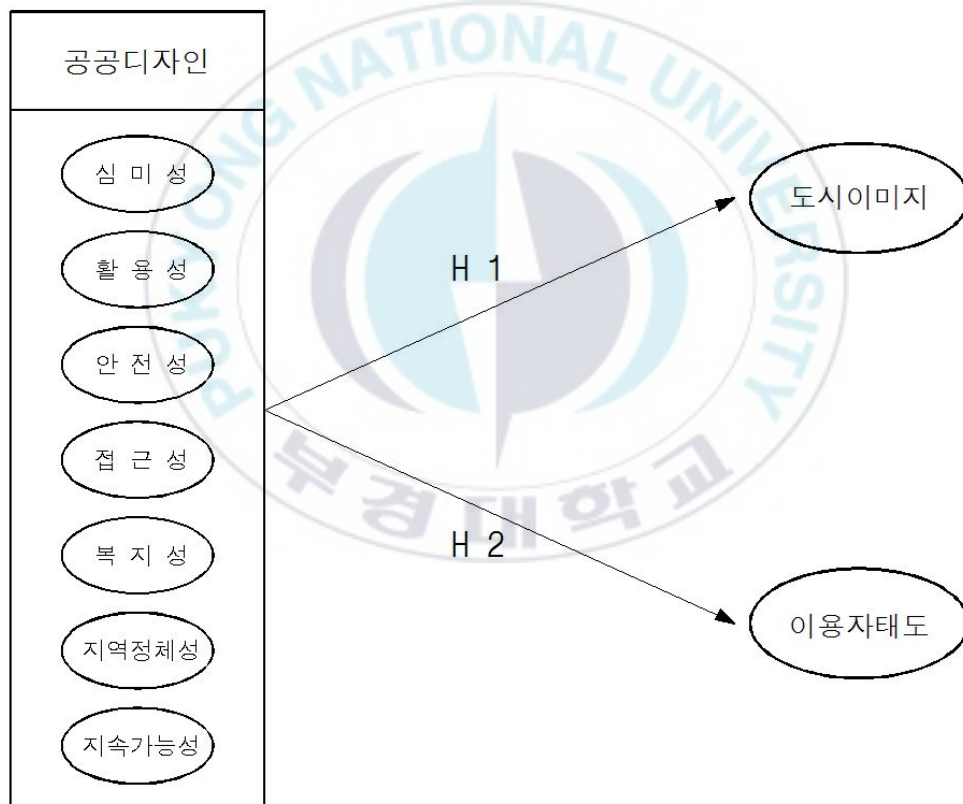


Figure 3-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을 중심으로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이 도시

이미지와 이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도시해안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이고, 종속변수는 도시이미지와 이용자의 태도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Figure 3-1의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해안의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이 도시이미지와 이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성별, 거주지, 나이 등의 변수를 명목척도로 측정하였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요인과 도시이미지 및 태도 요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1. 야간경관 공공디자인과 도시이미지의 관계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요소와 도시이미지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통해 공공디자인 요소와 도시이미지의 인식, 평가에 관한 요소를 추출하였다. 강성중·김진희(2011)는 지역이미지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방향을 연구하였으며, 분당과 일산 신도시를 사례로 하였다. 박용균(2012)은 전주시를 사례로 공공디자인이 도시 이미지와 도시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장준호(2012)는 해안경관개발이 관광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해안경관개발의 심미성, 통일성, 쾌적성을 설정하고 인지적 관광지 이미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미성은 관광환경 이미지에, 쾌적성은 관광시설, 매력, 환경 이미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최재원(2013)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의 구성체계를 물리적 평가요소, 심상적 평가요소, 기능·행태적 평가요소로 분류하였다. 이 구성요소들의 검증을 통해 바람직한 이미지의 도시디자인 평가체계를 구축,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도시경관이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야간경관, 특히 도시해안 지역의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 요소가 도시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의 야간경관, 특히 해안지역의 공공디자인 요소가 도시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심미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활용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안전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 접근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 복지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 지역정체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 지속가능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야간경관 공공디자인과 이용자 태도의 관계

공공디자인이 이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정책 및 계획, 디자인 평가에 관한 선행 논문을 통해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유창조·황태규·이상현(2009)은 도시의 개성적 요인을 탐색하여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도시 특성 요인으로 경제적 풍요성, 문화역사성, 시설 편리성, 생활 안전성, 환경 친화성, 교양 교육성, 경관 디자인의 요소를 선정하여, 도시태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홍규·오세정(2010)은 수용자인 공중이 공공디자인을 인식·수용하는 행태를 심미성, 선호성, 기능성의 측면에서 연구하여, ‘환상성과 상징성’, ‘독특성과 배려성’, ‘명료성과 실용성’, ‘단순성과 안전성’의 독특한 4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김선영(2013)은 환경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용도시설의 준공공공간 디자인요소가 이용자 만족도를 매개로 시설선택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용자는 준공공공간의 디자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복합용도시설을 선호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여성과 낮은 연령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질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기존 연구를 통해 다양한 평가지표로 분석되었으나, 대부분은 주간경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공공디자인 요소를 야간경관에 적용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고,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방문하는 태도에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은 이용자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심미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활용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안전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 접근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 복지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 지역정체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 지속가능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추출을 위해 안지윤·양위주·이광국(2015), 제해득(2014), 김도경·문정민(2013), 박용균(2012), 허진하(2012), 박재호(2011), 김기수(2010) 등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적합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을 야간경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평가 항목이라고 정의하고,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개념적 정의에 의거하여 7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1) 심미성(Aesthetics)

심미성은 예술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미적인 속성이다(Titus, 1986). 현대 디자인은 미적인 개념을 반영하여 색채, 형태, 재질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기능, 실용성, 상식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심미성은 인간의 미적 추구로 유발되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게 하면서 생활의 차원을 제고시켜주는 조건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민경우, 1995). 제해득·이주형·홍하연(2014)은 공공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미성이라 하였다. 야간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건물, 시설과 조명의 조화는 공공디자인의 주요 요소가 된다. 조명의 색채가 야간경관 및 주변 환경과 어울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이주영,

2015; 이현철·정강화, 2010; 김현정·유보현, 2009; 백승철, 2009; 이양병, 2010)

(2) 활용성(Availability)

활용성은 특정 공간의 용도와 기능으로서 인간 활동의 기초가 된다. 공간의 기능이 잘 작용된다면 이용자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활력이 생겨 공간이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야간경관의 조망점은 주변 건물과 도로와의 연결성이 좋아야 하며,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또,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안지윤·양위주·이광국, 2015; 허진하, 2012; 김도경·문정민, 2013).

(3) 안전성(Safety)

안전성은 도시의 야간 활동에 있어 외부의 공격이나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심리적 상태(양위주, 2015)로서, 경관 이용객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Marcus & Francis, 1997). 공간 이용자가 외부로부터의 저항이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디자인 서울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먼저 이용자 보행공간이 안전해야하며, 야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자연감시가 되는 구조인지도 중요한 요소이다(이경순, 2012; 최재원·여준기·최무혁, 2009; 이현철, 2010)

(4) 접근성(Accessibility)

이는 시각적, 물리적으로 주변과의 연결 상태를 통해 특정 장소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다. (허진하, 2012; 안지윤·양위주·이광국, 2015) 야간경관에 대한 접근성, 특히 공공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이 중요하다((사)한국경관협회, 2008). 이동의 연계성이 좋고, 이용하기에 쉽고 편리하며, 사람들이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김기수,

2010; 김민희, 2009; 허진하, 2012; 백승철, 2009; 박성진, 2012)

(5) 복지성(Welfare)

방문객이 야간경관을 경험할 때 인지할 수 있는 감정을 의미한다. 경관을 감상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 편안함 등을 느끼는 것이다(안지윤·양위주·이광국, 2015; 김도경·문정민, 2013).

(6) 정체성(Identity)

지역정체성은 지역이 지닌 장점과 특수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가치를 지닌 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는 도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Cheshire & Gordon, 1998). 문화, 자연, 지리, 역사의 의미를 시대의 가치에 맞게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만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이상훈, 2009; 허진하, 2012; 박성진, 2012; 박용균, 2012).

(7)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공공영역은 사용주체인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 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변화된다(허진하, 2012). 그 공간의 질적 수준과 효율적인 기능이 지속되도록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친환경적인 재료로 구성하여, 재생,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양병, 2011; 박성진, 2012; 윤종영·안혜신, 2009).

2. 도시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도시이미지를 관광목적지의 가치가 있는 도시해안 야간경관의 도시이미지로 정의하기로 한다. 도시의 야간경관을 보며 인지하는 방문객의 감정과 심상이 도시이미지의 요인이 된다. 도출된 9개의 도시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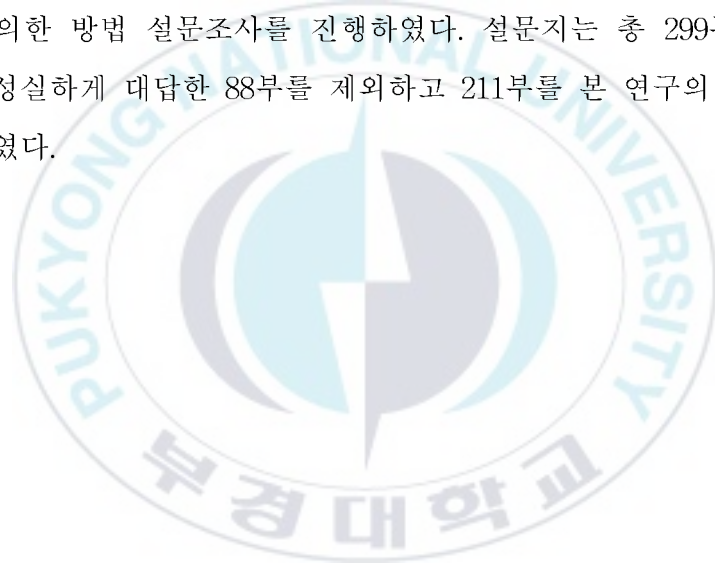
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화려하다, 독특하다, 역동적이다, 상징적이다, 이국적이다, 다채롭다, 조화롭다, 흥미롭다, 현대적이다. 설문문의 구성은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7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3. 이용자 태도

태도는 이용자의 지식과 신념을 바탕으로(인지) 생성된 정서적 반응으로(감정), 야간경관에 대한 선호, 경험의 경향(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감정적 태도에 해당하는 3가지 항목을 오상훈·이유라(2014), 안지훈·양위주·이광국(2015), 김홍규·오세정(2010)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7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3문항은 ‘야간경관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야간경관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좋다’, ‘야간경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다’이다.

제 2절 자료의 수집

도시해안의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 추출을 위해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공디자인과 도시이미지, 태도를 2015년 3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야간경관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거하고 본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28일 사이에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을 방문하여 야간경관을 경험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기입식에 의한 방법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99부를 수거하였으나 불성실하게 대답한 88부를 제외하고 211부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제 5장 실증분석

제 1절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5-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131명, 62.1%)이 남성(80명, 37.9%)보다 많이 조사되었다. 부산거주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자(93.4%)의 비율이 비거주자(6.6%)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연령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40대가 59명(28.0%), 30대가 46명(21.8%), 50대가 45명(21.3%), 20대가 32명(15.2%), 60대 이상이 29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Item	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	Percentage(%)
Sex	Male	80	37.9
	Female	131	62.1
Residence	In Busan	197	93.4
	Out of Busan	14	6.6
Age	20 - 29	32	15.2
	30 - 39	46	21.8
	40 - 49	59	28.0
	50 - 59	45	21.3
	60 above	29	13.7
Total		211	100

제 2 절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1.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야간경관 공공디자인과 도시이미지 및 태도에 관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할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관련 선행 연구에서 도출하였으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변수의 요약화와 측정 개념이 달라졌고, 적용한 분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 중 직각회전 방법인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인 경우와 고유값(Eigen values)이 1.0 이상인 공통요인을 추출하였다. 변수들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기 위한 KMO-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의 숫자와 케이스 숫자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를 의미한다. 결과 값이 높을수록 좋으나, Bartlett값은 $p < 0.5$ 를 기준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표본 적합도의 결과를 보면, 전체 표본적합도(KMO) 값이 0.86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값이 4003.867($p=0.000$)로 유의하며,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34개의 항목 중 요인화의 기준이 0.5 이하로 높은 적재량을 보이지 않는 접근성, 지속가능성, 활용성에 해당하는 변수를 5항목을 제외하였다. 나머지 29개의 항목들을 요인화한 결과 7개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이를 각각 심미성, 복지성, 지역정체성,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 활용성으로 명명

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설명력은 각각 12.666%(심미성), 12.031%(복지성), 11.385%(지역정체성), 10.704%(안전성), 10.277%(접근성), 8.589%(지속가능성), 6.347%(활용성)으로 총 72.000%의 분산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순서대로 .896, .916, .856, .857, .877, .850, .648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5-2와 같다.



Table 5-2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Concept	Factor							Communality
	Aesthetics	Welfare	Identity	Safety	Accessibility	Sustianability	Availa-bility	
AESTH 2	.832	.212	.152	.122	.044	.077	.012	.782
AESTH 3	.810	.128	.205	.206	.032	.066	.125	.778
AESTH 1	.778	.200	.162	.212	.063	.136	-.012	.740
AESTH 5	.732	.292	.116	.085	.071	.068	.112	.664
AESTH 4	.722	.022	.114	.210	-.002	.156	.308	.697
WELFA 3	.193	.830	.114	.101	.101	.075	.101	.775
WELFA 2	.258	.825	.078	.198	.142	.096	.015	.822
WELFA 1	.181	.809	.123	.251	.118	-.001	.109	.792
WELFA 4	.179	.777	.248	.165	.100	.170	.057	.766
IDENT 3	.166	.061	.818	.141	.092	.027	.074	.735
IDENT 4	.198	.136	.777	.109	.061	.122	.032	.693
IDENT 2	.169	.286	.758	.044	.088	.176	.118	.739
IDENT 5	.046	-.081	.673	.083	.105	.210	.274	.599
IDENT 1	.152	.318	.650	.214	-.037	.202	.075	.641
SAFET 2	.210	.126	.196	.802	.190	.032	.091	.786
SAFET 3	.206	.156	.015	.745	.117	.181	-.016	.669
SAFET 1	.133	.147	.205	.741	.136	-.009	.145	.670
SAFET 4	.137	.247	.162	.638	.152	.295	.158	.648
SAFET 5	.333	.271	.055	.526	.128	.321	.090	.591
ACCES 2	.025	-.014	.019	.119	.857	.039	-.006	.751
ACCES 3	.071	-.046	.092	.258	.842	.093	.098	.810
ACCES 4	.081	.259	.094	.061	.796	.129	.070	.741
ACCES 5	.002	.335	.090	.117	.773	.146	.124	.768
SUSTI 4	.106	.036	.189	.122	.183	.840	.089	.810
SUSTI 5	.063	.057	.223	.251	.081	.795	.055	.762
SUSTI 3	.237	.217	.160	.042	.109	.748	.141	.721
AVAIL 4	.102	.106	.223	-.076	.087	.145	.820	.779
AVAIL 3	.171	.149	.006	.258	.198	-.063	.677	.619
AVAIL 5	.129	.013	.262	.212	-.034	.253	.579	.531
Eigen Value	34.184	9.063	8.079	6.314	5.168	4.904	4.289	
Variance(%)	12.666	12.031	11.385	10.704	10.277	8.589	6.347	
Acc. Var.(%)	12.666	24.698	36.083	46.787	57.064	65.653	72.000	
Cronbach's α	.896	.916	.856	.857	.877	.850	.648	

KMO = .866 Bartlett: $\chi^2 = 4003.867^{**}$

**p<.001

2. 도시이미지와 이용자 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도시이미지와 이용자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5-3과 같다. KMO값은 .881,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값은 1099.870, $p=0.000$ 으로 나타나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도시이미지 9개의 항목 중 요인화의 기준이 0.5 이하인 화려하다, 이국적이다, 조화롭다에 해당하는 변수 3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항목들을 도시이미지로 요인화하였다. 총 분산설명력은 69.200%, 공통성은 최소 .577로 나타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도시이미지의 Cronbach's α 계수는 .887, 이용자 태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51로 Nunnally(1978)이 제시한 기준치인 0.7이상으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3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Concept	Factor		Communality
	City Image	User's Attitude	
Various	.845	.128	.731
Unique	.784	.278	.692
Modern	.777	.269	.676
Attractive	.721	.347	.640
Dynamic	.639	.475	.634
Symbolic	.609	.454	.577
Attitude 1	.248	.905	.633
Attitude 2	.254	.837	.880
Attitude 3	.315	.731	.765
Eigen Value	57.492	11.709	
Variance(%)	38.400	30.800	
Acc. Var.(%)	38.400	69.200	
Cronbach's α	.887	.851	
KMO = .881 Bartlett: $\chi^2 = 1099.870^{**}$			

**p<.001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개념 간의 관계성 확인이 필요하며, 상관관계 분석으로 구성개념 간의 유의적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구성개념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이용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상관계수의 값이 0.2-0.4인 경우, 변수들 간에 약간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값이 0.4-0.7의 사이에 있는 경우는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한다(강병서·김계수, 1997). 다시 말해서, 상관계수가 높으면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독립변수들의 관계방향이 일치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Table 5-4를 보면 활용성은 심미성($r=.393, p<.01$)에 유의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태도는 심미성($r=.534, p<.01$), 활용성($r=.340, p<.01$), 안전성($r=.554, p<.01$), 접근성($r=.400, p<.01$), 복지성($r=.594, p<.01$), 지역정체성($r=.457, p<.01$), 지속가능성($r=.577, p<.01$), 도시이미지($r=.649, p<.01$)에 유의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모든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4 Correlation Analysis of Conceptual Valuables

	1	2	3	4	5	6	7	8	9
Aesthetics (1)	1								
Availability (2)	.393**	1							
Safety (3)	.524**	.408**	1						
Accessibility (4)	.201**	.271**	.411**	1					
Welfare (5)	.490**	.303**	.509**	.335**	1				
Identity (6)	.440**	.443**	.432**	.247**	.411**	1			
Sustianability (7)	.364**	.354**	.445**	.311**	.329**	.466**	1		
City Image (8)	.572**	.431**	.538**	.314**	.504**	.628**	.566**	1	
Attitude (9)	.534**	.340**	.554**	.400**	.594**	.457**	.577**	.662**	1
Mean	4.62	4.33	4.42	4.17	4.84	4.43	4.03	4.57	4.96
Std.	1.189	1.042	1.054	1.223	1.193	1.063	1.077	1.050	1.034

* $p < .05$, ** $p < .01$, (), Number is the squar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제 4 절 가설 검증

1. 공공디자인과 도시이미지의 관계

가설 1은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이 도시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공공디자인의 하위요인으로서 심미성, 활용성, 안전성, 접근성, 복지성, 지역정체성, 지속가능성과 도시이미지의 영향관계에 대한 검증이다.

이러한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심미성, 활용성, 안전성, 접근성, 복지성, 지역정체성, 지속가능성을 독립변수로 도시이미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값은 44.900으로 $p < .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의 분석결과, 공공디자인 하위 요인의 심미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라는 가설 1-1에 대하여 β 값 .222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2인 공공디자인의 활용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의 검증결과는 $p > .05$ 로 나타나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가설 1-3인 공공디자인의 안전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에 대한 검증결과 $p = .048$ 로 나타나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β 값이 .119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1-4인 공공디자인의 접근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라는 검증결과는 $p = .960$ 로 나타나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가설 1-5인 공공디자인의 복지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라는 검증결과 역시 t 값 $p > 0.05$ 로 나타나 가설 1-5 또한 기각되었

다.

가설 1-6의 공공디자인의 지역정체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증결과 β 값 .307($p=.000$)로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7의 공공디자인의 지속가능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p=.000$ 로 나타나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β 값이 .281로 지역정체성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공공디자인 하위요인은 심미성, 안전성, 지역정체성, 지속가능성으로 나타났다.

Table 5-5 Multiple Regression Results

Model		Non-Std. Coef		Std. Coef	t value	Sig.	Multi collinearity	
		B	Stand. erro	Beta			DIFF	VIF
City Image	Constant	-.070	.279		-.250	.803		
	Aesthetics	.202	.052	.222	3.917	.000	.603	1.657
	Availability	.059	.054	.057	1.088	.278	.714	1.402
	Safety	.122	.062	.119	1.985	.048	.539	1.856
	Accessibility	.002	.044	.003	.051	.960	.780	1.283
	Welfare	.053	.050	.058	1.051	.295	.634	1.577
	Identity	.313	.057	.307	5.519	.000	.626	1.598
	Sustainability	.283	.054	.281	5.286	.000	.685	1.460
Adjusted R^2 = .594, F = 44.900 , Significance = 0.00**								

*: $p<.05$, **: $p<.001$

2 공공디자인과 이용자 태도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태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된 회귀모형은 $\alpha=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R제곱이 .574로 57.4%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가설을 살펴보면 가설 2-1인 공공디자인의 심미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증결과 심미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002$ 로 나타나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값이 .185로 영향력이 지속가능성, 복지성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설 2-2인 공공디자인의 활용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증결과는 $p>.05$ 로 나타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가설 2-3인 공공디자인의 안전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증결과는 $p>.076$ 로 나타나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가설 2-4인 공공디자인의 접근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p=.025$ 로 나타나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β 값이 .117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2-5의 공공디자인의 복지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검증결과 $p=.000$ 로 나타나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β 값이 .295로 지속가능성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설 2-6인 공공디자인의 지역정체성은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증결과 역시 $p>.05$ 로 나타나 가설 1-7 또한 기각되었다.

가설 2-7의 공공디자인의 지속가능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증결과 $p=.000$, β 값은 .317로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의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공공디자인의 하위요인은 심미성, 접근성, 복지성, 지속가능성으로 나타났다.

Table 5-6 Multiple Regression Results

Model		Non-Std. Coef		Std. Coef	t value	Sig.	Multi collinearity	
		B	Stand. erro	Beta			DIFF	VIF
Attitude	Constant	.805	.277		2.901	.004		
	Aesthetics	.161	.051	.185	3.134	.002	.603	1.657
	Availability	-.030	.054	-.030	-.562	.574	.714	1.402
	Safety	.109	.061	.111	1.785	.076	.539	1.856
	Accessibility	.099	.044	.117	2.261	.025	.780	1.283
	Welfare	.255	.050	.295	5.128	.000	.634	1.577
	Identity	.043	.056	.044	.756	.451	.626	1.598
	Sustainability	.304	.053	.317	5.724	.000	.685	1.460
R = .758 ^a , R ² = .574, Adjusted R ² = .560, F = 39.148 , Significance = 0.00**								

*:p<.05, **:p<.001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해안도시의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이 이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시이미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실행되었다 공공디자인의 하위요인으로 심미성, 활용성, 안전성, 접근성, 복지성, 지역정체성, 지속가능성을 선정하고, 이용자의 태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도시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측정문항들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7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가 있고, 매년 삼천만명 이상, 피서철 천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지 총 299부를 배부하여 299부(회수율 100%)를 회수하고, 타당하지 않은 88부를 제외한 2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징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사용하였고, 설문지 항목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통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실증자료들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가설 검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유의성 평가 척도인 F값과 R^2 값등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이 도시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의 결과를 보면, 하위 가설1-1(심미성 → 도시이미지), 가설1-3(안전성 → 도시이미지), 가설1-6(지역정체성 → 도시이미지), 가설1-7(지속가능성 → 도시이미지)의 4항목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력의 정도는 지역정체성, 지속가능성, 심미성, 안전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설1의 결과를 보면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이 도시이미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정체성이 가장 높은 영향을 나타내는 바, 이용자는 야간경관의 독특한 개성, 지역의 문화 활용, 고유한 지리적 특성이 도시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조명을 사용하며 재생,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 이루어지고, 야간경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조명의 심미성이 도시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안전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적당한 조명으로 안전하게 경관을 보고, 보행할 수 있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중 활용성, 접근성, 복지성은 도시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도시이미지를 시각적 형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편안함, 스트레스 감소 등의 감정적 부분인 복지성과, 찾거나 방문하기 쉬운지를 나타내는 이동 측면의 접근성의 영향력을 느끼기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 경관 조망 시 접근성에 대한 고려는, 경관조망을 위해서는 방문하기에 어렵고, 불편한 위치에 있더라도 관광객들은 방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 요소가 이용자의 태도에 정(+)의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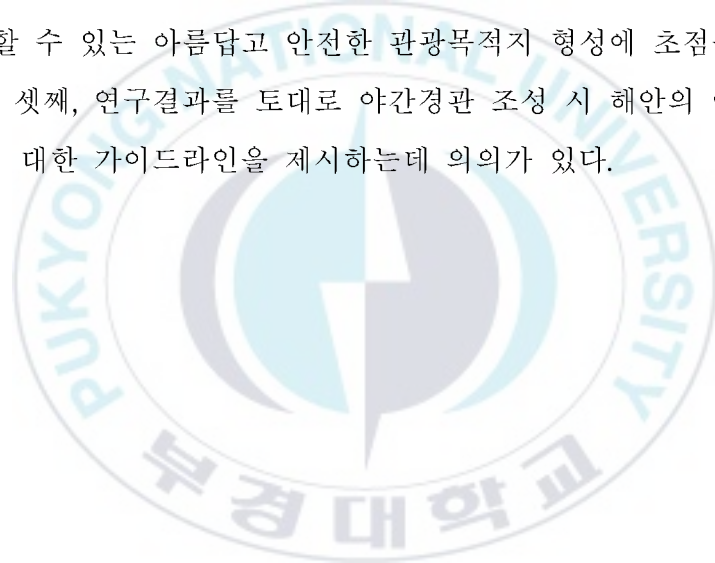
미칠 것이라는 가설2의 결과를 보면 하위 가설2-1(심미성 -> 태도), 가설 2-4(접근성 -> 태도), 가설2-5(복지성 -> 태도), 가설2-7(지속가능성 -> 태도)의 4항목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력의 정도는 지속가능성, 복지성, 심미성, 접근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이용자의 우호적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생, 재활용하는 지속가능성, 이용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행복감과 편안함을 주는 복지성,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심미성, 표지판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의 향상이 요구된다.

그에 반해, 지역정체성, 활용성, 안전성은 이용자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체성의 경우 야간에는 경관의 지리적 특성을 관찰하기 어렵고, 가로등, 상업 간판의 조명 등으로는 이용자가 지역정체성을 느끼기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광안리의 야간에 감상할 수 있는 역사적 정취의 문화재의 부재 역시 각각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안전성의 경우, 다소 어둡거나 위험하더라도 야간경관이 매력적이라면 이용자가 지역의 가치를 인식하고 방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활용성은 가설1의 도시이미지와 가설 2의 이용자 태도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용성의 경우, 부산불꽃축제와 콘서트 등으로 해변이 활용되고 있으나, 당일만 진행되는 단발성 행사이고, 경관과 연계한 이벤트나 축제, 체험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이미지 상승 효과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문하려는 태도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변광장과 산책로, 해수욕장 등 오픈스페이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야간경관과 연계, 지속적으로 해안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의 관광활동은 주간에

매력물을 경험하는 관광목적지가 중심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 증대에 비추어 시의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높다. 둘째,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의 공공디자인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서 야간관광상품 개발 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공공디자인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실제 경관디자인에 적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이용자가 관광목적지 선택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선택요인을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체험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답고 안전한 관광목적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야간경관 조성 시 해안의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도시이미지를 매개로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과 태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설문이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관광객보다 부산 시민의 설문 답변률이 훨씬 높았다.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산 시민이 아닌, 관광목적지로 보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국내관광객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관점으로 대상지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를 실시한 계절에 과거 경험에 기초한 인지 간의 차이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설문기간은 4-5월 사이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야간 활동이 가장 많은 여름이 제외되어 있다. 축제와 행사, 방문 인구가 많은 여름이 포함되었다면 공공디자인에 도시이미지와 태도에 대한 인과관계에 의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이 도시이미지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나, 주간과 야간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과 야간의 공공디자인이 도시이미지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주간의 매력과 야간의 매력을 차별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 관광계획이나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야간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조명을 기존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조명은 도시의 개성을 연출하기 때문에, 야간 조명은 독특한 구

조와 패턴, 색상 등을 통해 고유한 도시의 모습을 창출시킨다. 따라서 향후 도시의 해안경관에서 조명의 디자인 요소나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이라는 한 장소에 의한 연구이기 때문에 향후 광안리해수욕장 일원과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송도해수욕장 일원 등 다양한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미희(1999). 생태관광객의 여행동기 및 태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병서·김계수(1997). 인과관계 분석에서 경로도를 이용한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론. 사회과학연구, 23(1), 161.
- 강성중·김진희(2011). 지역이미지 창출을 위한 분당, 일산신도시의 공공디자인 방향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7(1), 14-15.
- 권영상·조민선(2010).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5(1), 357.
- 권용우(2010). 도시의 이해. 박영사.
- 김경인(2003). 도시야간경관의 연출기법. 브이아이랜드.
- 김규진·이주향(2013). 야간경관계획에서 건축물 경관조명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26, 157-166.
- 김기수·이경기(2009). 도시 공공디자인 도입 활성화를 위한 참여주체의 역할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1-83.
- 김남정(2005).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구성요소와 영향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도경·문정민(2013). 공공공간의 평가 지표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28, 45-56.
- 김명수(2012). 해양 친수공간을 위한 LED조명 파고라 시설물 디자인 제안 연구: 부산 민락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2(2), 349-359.
- 김민희(2009). 지하철역 캐노피의 설치현황에 따른 디자인 평가에 관한 연

- 구: 대구광역시 지하철역 캐노피를 대상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8(3), 74-83.
- 김선영(2013). 환경심리학적 접근으로 본 도시 준공공공간의 디자인 요소와 이용자 행태. 디자인융복합연구, 12(4), 1-22.
- 김유지·김양석(2009). 여수시 주요 야간경관에 있어서 물리적 구성요소의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 공학기술논문지, 2(2), 311-321.
- 김중현·박혜리·임창호·박원주·이광식(2009). 야간 도시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연출에 관한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 논문집, 6-9.
- 김현석·이수정·장유리·임한울(2012).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분석으로 본 공공디자인 연구: 2008-2010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사업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5(3), 28-38.
- 김현정·유보현(2009). 공공시설에 적용된 사용자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2), 149-157.
- 김효윤·양길승(2015). 마케팅믹스 요인에 의한 도시관광 만족도와 태도연구 :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9(5), 117-132.
- 김흥규·오세정(2010). 공공디자인에 대한 수용자 태도 연구: 선호와 기능성 중심으로. 주관성연구, 21(0), 35-51.
- 김희철·이한울·안건혁(2013). 해외 수변공간 개발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계획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2), 81-98.
- 류인평·김영주(2011). 관광위험지각과 관광객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6(1), 152.
- 민경우(1995).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 박경태·백종은(2013). 지역축제 환경단서에 의한 지역이미지가 재방문의도

- 에 미치는 영향: 가야문화축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5(1), 29-46.
- 박성진(2012).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본 어반 폴리 프로젝트의 이용 후 평가 : 건축학 전공 학부생의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2), 107.
- 박완수(2013). 공공디자인기능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균(2012).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접근: 전주시 도시 이미지 선호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6(2), 75.
- 박재호(2011). 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를 위한 기초항목 연구: 부산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4(3), 355-356.
- 변재상·최형성·이정원·임승빈(2006). 도시 이미지에 기초한 도시유형 분류. 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1(3), 7-20.
- 박태욱(2015). 인지특성이 고려된 효율적 공공디자인의 정확도와 지속도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6(1), 235-249.
- 박희진(2002). 자연공원 선택행동에 있어서 태도가 만족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레저연구, 14(2), 303-315.
- 백승철(2009). 공공디자인을 위한 미디어파사드 평가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한국경관협의회(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보문당.
- 서주환·박선영(2011). 도시경관의 시지각 특성과 선호도와의 관계성 분석: 서울특별시 우수조망명소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9(1), 37-47.
- 서지연(2012). 디자인 프로세스에 기초한 공공디자인 수업 방안 연구. 한양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홍경(2008). Story of Design City. 광문각.

안영면(2001). 현대 관광소비자 행동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안지윤·양위주·이광국 (2015).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요소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문화연구, 43, 157-170.

안현태·최윤석·정인영·김정태(2007). 야간가로경관의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반응 평가.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21(3), 1-10.

안혜림·이현경(2014).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통한 가치 분석과 미래 방향성 예측.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4-125.

양도식(2007). 문화공간으로서 도시수변공간의 성공을 결정짓는 5가지 도시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찰. 서울도시연구, 8(1), 85-105.

양승희(2010). 도시관광 이미지 요소가 외래 관광객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여호근(2000). 관광태도 결정요인이 지속가능한 관광지선택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상훈·이유라(2014). 관광지 스토리텔링이 관광 태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6(1), 131-149.

유창조·황태규·이상현(2009). 도시특성평가가 도시브랜드개성과 도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 마케팅 저널, 31-57.

유홍택(2014). 공공디자인 상품성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 37(0), 67-80.

윤정현(2009). 관광수용태세, 관광태도 및 관광이미지와 재방문의도의 구조적 관계. 관광레저연구, 21(4), 353-370.

윤정현·이정학(2011). 일과 생활의 조화, 긍정적 태도와 여가 및 관광활동간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23(4), 61-80.

- 윤종영·안혜신(2009). 공공디자인 행정론. 삼성출판사.
- 이경수(2015). 농촌 체험프로그램 서비스품질의 척도개발과 관광태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9(7), 25-41.
- 이경순·이재환(2012). 서울시 가로변 버스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례 연구. 춘계학술대회, 136.
- 이금진(2008).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버밍엄 브린들리플레이스 수변복합개발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3), 33-42.
- 이미순(2007). 부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야간경관 조성. 부산발전포럼, 7, 15-16.
- 이상훈(2009). 공공공간 디자인에서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병(2010). 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양숙·나건(2014). 공공디자인 4.0: 공공디자인의 확장과 진화.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20(2), 437-446.
- 이연정·이수범(2008). 한식의 세계화전략이 국가이미지, 한국태도,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 24(3), 261-280.
- 이윤희(2012).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생태적 공공성의 디자인특성 분석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2(2), 469-484.
- 이정형(2002). 도시의 경관계획. 세진사.
- 이종희(2013). 도심의 야간 경관에 대한 문화지리적 접근.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 507.
- 이주영(2015). 국내 공공디자인의 연구동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7(1), 302.
- 이지은·서유석(2009). 창원시 도심상업지역 야간경관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2), 110.
- 이한석·이명권·오상백(2005). 영도 해안의 야간경관평가 연구. 한국향해향만학회지, 29(3), 283-284.
- 이현철·정강화(2010). 도시공원에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5), 401-412.
- 임근욱(2015). 제주도 지질공원 방문객의 관광태도가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7(7), 25-43.
- 임승빈(1998).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지영(2010). 관광객의 걱정과 위험지각이 관광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래·신근창·양승우(2011). 서울시 대표경관의 야간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5).
- 장조아·송지원(2007). 대한민국 지자체 사례를 통한 도시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브랜드 이미지와 시각요소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8(2), 449.
- 조은나(2009). 생태관광객의 방문동기가 환경태도와 환경보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김경훈(2014). 보행자의 메타인지능력과 횡단보도 공공디자인 정보간 관계 분석. 한국과학예술포럼, 17(0), 373-373.
- 정만모(2008). 신도시 도시이미지의 형성요소가 도시환경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당,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석순·이준엽(2012). 박람회만족 관광이미지 및 관광태도 간의 관계연구. 관광연구저널, 26(3), 179-196.
- 정순원·우신구(2010). 탈산업시대 소프트 워터프런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5), 71-80.

- 정혜영(2009). 공공디자인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11(0), 99-110.
- 정호권(2011). 관광목적지 평가, 관광태도 및 행동의도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23(7), 61-76.
- 정희정(2009). 공공디자인의 평가척도어 추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해득(2014). 공공디자인의 이용객별 중요요인 인식 차이 분석: MANOV A 분석을 이용하여. 디자인융복합연구, 13(2), 54-55.
- 최기종(2002). 도시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환경단서, 가치 지각 변수의 구조적 체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민아·노정민·구자훈(2009). 야간경관계획의 평가항목 선정 및 가중치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3), 107-122.
- 최성범(2010). 래프팅참가자의 여가체험공간 속성과 감정반응, 체험만족, 재방문의도의 구조관계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1), 33-45.
- 최승담·박경렬(2005).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관광이미지 측정척도 개발. 서울도시연구, 6(1), 93-106.
- 최영준·장동련·권승경(2008). 공공디자인으로서 파주시 에코-통합간판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19(5), 233-242.
- 최재원·여준기·최무혁(2009).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용자디자인평가(PDE) 요소의 선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1(3), 129-136.
- 하종완(2006). 농촌관광동기·태도가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진하(2012). 이용자 만족도를 위한 공공영역의 디자인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해 외 문 헌】

- Allport, G. W.(1979).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Wesley.
- Anderson, V., & Prentice, R.(1997). Imagery of Denmark among visitors to Danish Fine Arts Exhibitions in Scotland. *Tourism Management*, 18(7), 78-91.
- Asmed, Z. U.(1991). The Influence of the Components of a State's Tourist Imageon Product Positioning Strategy. *Tourism Management*, 12(4), 331-340.
- Asseal, H.(1998).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Cincinnati, Ohio: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 Carmichael, B. A.(2000). A Matrix Model for Resident Attitudes and Behaviors in a Rapidly Changing Tourist Area. *Tourism Management*, 21(6), 601-611.
- Cheshire, P. C., & Gordon, R. I.(1998). Territorial Competition: Some Lessons for Policy,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s*, 32, 321-346.
- Crouch, D.(2006). A Handbook of Leisure Studies, *Geographies of Leisure*, 125-139.
- Fishbein, M., & Ajzen(1975). Beliefs,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 Gerrig, R. J., & Zimbardo, P. G.(2007). Psychology and Life, Allyn & Bacon. International Edition.
- Glover, T. D.(2003). The Story of the Queen Anne Memorial Garden: Resisting a Dominant Cultural Narrative. *Journal of Leisure*

- Research, 35(2), 190 - 212.
- Godfrey, B.(1998). Attitudes Towards Sustainable Tourism in the UK; A View from Local Government, *Tourism Management*, 3, 213-224.
- Hong, H.(2006). Nightscapes on Open Space, MR067 School of Architecture and Design RMIT University, 1-71.
- Hoyle, B., Pinder, D., & Husain, M.(1998). Revitalising the Waterfront: International Dimension of Dockland Redevelopment. Belhaven Press, London.
- Hunt, J. D.(1975). Image as a Factor in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4, 1-17.
- Jon, L.(1994). Urban Design. The American Experience, NY, VNR Company, 180-192.
- Keller, K. L.,(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ing Custom-er-Based Brand Equity. *Jornal of Marketing*, 57.
- Lauer, D. A.(1979). Design Basic. NY, Holt Rinehart and Windstone.
- MacKay, K. J., & Fesenmaier, D. R.(2000). An Exploration of Cross Cultural Destination Image Assess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3), 417-423.
- Marcus, C. C., & Francisi, C.(1997). People Places: Design Guidelines for Urban Open Space. John Wiley & Sons. 9-10.
- Mccool, S., & Martin, S.(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 of Travel Research*, 28(1), 213-224.
- McInroy, N.(2000). Urban Regeneration and Public Space: The Story of

- an Urban Park. *Space and Polity*. 4, 23 - 40.
- Milman, A. & Pizam, A.(1995). The Role of Awareness and Familiarity with Adestination: The Central Florida Case. *Journal of Travel Research*, 33(3), 21-27.
- Pask, A.(2010). Public Space Activism, Toronto and Vancouver: Using the Banner of Public Space to Build Capacity and Activate Change, *Insurgent Public Space: Guerrilla Urbanism and the Remaking of Contemporary Cities*, 227-240
- Proudford, P.(1996). Government Control in Urban Waterfront Renewal: A Comparative Review, *Journal of Urban Design*, 1(1), 105-114.
- Schiffman, L. G., & Kanuk. L. L(1991). *Consumer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eaton, A. V., & Bennett, M. M.(1996). *Marketing Tourism Products: Concepts, Issues and Cases*.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 Shinew, K. J., Glover, T .D., & Parry, D.C.(2004). Leisure Spaces as Potential Sites for Interracial Interaction: Community Gardens in Urban Area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3), 336 - 355.
- Um, S., & Crompton, J. L.(1990). Attitude Determinants in Tourism Destination Choi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17, 432-448
- Zhou, X., Jin, X., Wang, F., & Wang, Y.(2010). Studies on Construction and Evaluation of Nightscape in Shanghai, 1-4.

설 문 지

No.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을 중심으로 해안도시의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귀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최 현정

지도교수 : 부경대학교 양 위주 교수

E-mail : chjshy@hanmail.net

C.P : 010-9676-5365

1. 다음은 귀하가 지각한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의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 보는 곳을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명의 밝기가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명이 주변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이 편안함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을 보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느 장소인지 찾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이 행복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과 건물, 시설이 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을 보는 곳이 누구나 보행하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이 광안리 지역의 고유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을 날씨에 관계없이 볼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에 대한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진행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야간경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잘 반영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에 잘 어울리는 색채가 사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을 보는 곳이 주변 건물, 인도와 도로 등의 연결성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이 광안리 지역의 자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으로 기분이 좋아 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이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을 보는 곳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이 재생,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명의 색채가 주변환경과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이 광안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를 잘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을 보는 곳이 열린 공간으로 자연감시가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이 광안리 지역의 문화를 잘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을 보러 오는 길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친환경적인 조명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당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광안리 야간경관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의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벤트와 축제를 통해서 이미지 상승 효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가 최근 6개월 경험한 광안리 해수욕장 야간경관의 도시이미지를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이미지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화려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독특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현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역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상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국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채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최근 6개월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의 야간경관의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V표하기 바랍니다.

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야간경관에 대한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귀하와 관련된 일반사항입니다. 각 항목에 V표 하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는 현재 부산에 거주 중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이상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